

군산 · 익산 전역에 강한 비

# 호우 피해 최소화 총력

### 군산시, 취약지 예찰·발빠른 복구 등 나서… 군부대 투입하기도

군산시가 60년만에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적극적인 집중호우 대비 예찰 활동으로 피해예방을 실시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군산에는 평균 498.3mm의 비가 내렸다. 최고로 많은 강수량을 보인 지역은 어청도로 712.4mm의 비가 집중됐다.

피해현황은 이날 현재 총 450건으로 도로침수 130건, 주택·상가침수 88건, 토사유실 84건, 기타 도로파손 148건이었으며 이중 192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258건을 임시 조치했다.

농작물은 3,450ha(하 3,000ha, 공 450ha)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인명 피해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16일 오전 현재)

시는 16일 오전 8시 30분 도지사 주재 영상회의에 참석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을 보고하고 호우 예보에 따른 대비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전 직원에 비상 조치를 발령하고 관내 산사태·급경사지, 유실·하천 및 우수지 범람 등 인명피해에 직결되는 취약지 예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왔다.

또, 사전대피로 인한 이재민은 51세대 92명(경로당 26명, 여관 5명, 주민



연일 많은 비가 내린 군산시 구암동과 나운3동에 군부대가 투입돼 수해 피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 침수 등 총 450건 피해 발생… 192건 조치 완료 · 258건 임시조치

센터 23명, 친인척 38명)이 발생했으며 11세대 13명은 조치완료에 따라 귀가했다.

특히, 산사태 징후가 포착된 지역주민 28세대 52명은 대피를 완료하고 중점 취약지역 42개소에 대한 주민 대피 권고 및 지속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경사 범람대비 주민 대피 권고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강일준 군산시장은 “소중한 우리의 이웃과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예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면서 “인명피해에 직결되는 취약지 예찰활동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16일부터 구암동과 나운3동에 군부대가 투입돼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7일부터는 주요 피해지역에 투입돼 발빠른 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가 생활 속 일상정원부터 대규모 녹색 인프라 조성까지 투트랙 전략으로 녹색정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익산시, 녹색정원도시로 ‘거듭’

### 대규모 녹색 인프라 구축 시민 삶의 질 향상 박차

익산시가 생활 속 일상정원부터 대규모 녹색 인프라 조성까지 투트랙 전략으로 녹색정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누구나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일상정원 문화를 꽃피우고, 자연과 도시가 융합할 수 있는 대규모 녹색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어울림정원’과 ‘스마트 가든’은 주민 생활에 녹아드는 익산의 대표적 일상정원이다.

‘어울림 정원’은 마을 유희부지나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공유공간에 주민들이 꽃과 나무 등을 심고 가꾸며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22개 읍면동에 주민들이 가꾸어 줄림정원 24개소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개소에 이어 올해 참여가 2배 이상 늘어나 총 35개 동네정원이 확충되고 여기에다 정원을 배우고 가꾸는 시민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원 디자인과 조성에 직접 참여해 동네꽃밭을 만들며 정원문화를 일상으로 스며들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일상정원인 ‘스마트가든’은 산업단지나 병원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실내용 적합한 식물을 심고 자동화 관리 기술을 도입해 치유·휴식·관상 효과를 극대화했다.

익산시는 올해 8곳을 포함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단지 및 공공시설 12곳 등 총 20곳이 조성돼 실내에서 늘 푸른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업무투명성 향상 위해 부서별 메뉴얼 추진

군산시가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부서간 협업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이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은 지난 5월 발표한 ‘군산시 내부청렴도 자체조사’ 결과에서 업무처리 투명성을 위한 우선순위에 과제로서 직원들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항목이다.

흔히 ‘업무매뉴얼’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직무편람’으로서 사무 분장 단위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업무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자료집이다.

시는 이번 업무매뉴얼 작성을 1회에 그치지 않고 연 2회 정기 인사 전과 규정·지침 등 변경 시기에 맞춰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정착시켜겠다는 방침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 나복임·홍동수씨 등 군산시명장 2명 선정

군산시가 2023년 군산시 명장으로 화해장식 직종의 나복임(리복임플로체 대표씨, 제과·제빵 직종) 홍동수(홍운베이커리 대표씨)를 선정했다.

올해의 명장 선정은 지난 12일 군산시 명장심사의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현장심사로 숙련 기술인 자격을 검증하고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된 리복임플로체 나복임 대표는 31년간 화해 분야에 종사하면서 화해장식 기능사, 원예예술치료지도사 등 다양한 자격을 취득했으며, 다수의 작품전시회와 매체기고, 논문·서적 저술 등을 통해 화해기술을 널리 알렸다.

홍운베이커리 홍동수 대표는 38년 경력의 제과기능장으로서 평소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활용한 우리쌀빵을 개발하는데 정진해왔다. 그는 본인의 제과·제빵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군산=김관근 기자

### 군산시 보건소, 우리가족 ‘오·운·완’ 대상자 모집

군산시 보건소는 온 가족 비만 예방을 위한 화이팅치한 우리가족 ‘오·운·완(오늘운동 완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족 8팀을 17일부터 21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둔 가족 8팀이다. 신청한 가족은 모집기간 동안 보건소에 방문해 체성분을 측정했을 때 자녀의 체지방률이 표준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부모님 중 1명 이상 반드시 동반 참여해야 하고 가족당 인원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주 2회(화, 목요일) 13주간 운영되며,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간에 운영하는 첫 방송댄스 강좌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방법 문의 기타 상담 예약은 군산시 보건소 건강증진실 ☎454-5825~582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관근 기자

### 익산시, 피해주민 지원 총력… 행정력 동원 추가 피해 방지 나서

익산시는 연일 쏟아진 폭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 주민 대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13일부터 지역 최고 498.5mm를 포함해 평균 334.9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지난 14일 시는 익산천 등 하천 범람 위험에 따라 춘포면 학연마을(오전 11시), 합라면 연화마을(오후 3시) 등에 사전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재민 구호를 위해 공무원 6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춘포면 천서초등학교 강당에 임시 대피소를 꾸렸으며, 학연마을에 40인승 버스 1대를 지원하여 주민대피를 도왔다. 마을 주민 40여명 중 친인척집 등으로 옮긴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29명이 대피소로 모였다.

시는 대피소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개인별 담요 및 생활용품 등이 포함된 응급 구호세트, 라면, 물, 음료수 등 비상장비를 비롯해 도시락을 보급하였으며, 가구별로 텐트를 치고, 바닥매트를 지원하는 등 이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나섰다.

또한, 합라 연화마을은 양산경로당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해 주민 30여명을 대피시켰으며, 시에서 도시락과 응급 구호세트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주택 침수 및 산사태 위험 등 주민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여산면민회관, 옹포 구룡목경로당, 동산동 옛뚝 경로당, 황등면 부령산야·불로마을경로당, 망성면 신흥·무형·상남마을회관, 삼성동 외화마을 경로당 등 11개소에 대피소를 마련해 114명이 대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 14일 침수구간인 송학동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춘포면 천서초교 강당 등 임시 대피소 운영

피중이다. 앞서 정현을 시장은 14일 새벽 비상대응 2단계 발령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고 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상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대응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침수구간인 송학동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유천배수장을 방문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가동 상황과 정비를 점검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행정을 이어갔다.

정 시장은 주말에도 많은 비가 내려

저지대 침수지역 등이 순식간에 침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 점검을 강화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특히, 붕괴 등의 재해취약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행강우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관련부서와 읍면동 공무원 등이 협업해 산사태, 급경사지, 노후 축대, 절개지 등을 수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계속해서 비가 지속될 경우 하천변 저지대 등 침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 조치 등을 실시하고, 하천변 둔치 주차장 차장은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용안면 10개 마을에 대피명령 발령

### 급강 분류 합류지점 산복천 제방 붕괴 위험 감지

### 시·경철·소방·군부대 합동 주민 대피 조치 중

익산시는 용안면 10개 마을 주민들에 대해 대피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15일 오후부터 산복천 제방 보강작업을 실시 중이었으며, 대형탱크 방류량 확대와 지속적인 호우로 인해 급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16일 오전 6시 용안면 석동배수장 인근의 산복천 제방에서 붕괴 위험이 감지됐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372세대, 주민 631명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다.

대피 대상은 전날 사전대피 권고가 내려졌던 용안면 신은, 석동, 부억, 울산, 석우, 용두, 법성 7개 마을과 송곡, 간이, 공항 3개 마을이 추가되어 총 10개 마을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용안면 석동배수장 인근 지역에 침수된 모습. (사진=익산시청 제공)

정현을 익산시장은 대피 명령 발령 즉시 용안면 현장점검에 나섰으며, 시 직원들은 버스 4대를 동원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와 함께 주민들의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형 소호거리 이끌 청년 ‘지구장이 마을’ 탄생

#### 중앙동 중앙맨션서 발대식

익산형 소호거리를 이끌 청년 그린크래퍼(친환경 수공업) 지구장이 마을이 익산 원도심에 꾸러진다.

지구장이 마을은 중앙동 일원 구도심에서 수공업에 바탕으로 청년 공동체의 장과 거점 중심 청년 상점을 확대해 기존 원도심의 문화예술 지원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견인한다.

시는 14일 오후 중앙동 중앙맨션(익산시 중앙로 17)에서 청년마을 ‘지구장이 마을’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청년마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대진표 추첨, 달리기 대회, 식후행사, 시상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달리기 대회로 발대식을 진행해 청년이 가진 ‘열정, 진취적’ 이미지를 승화하여 지구장이 마을도 앞으로 합치게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지구장이 마을’은 중앙동·청인동 일원 구도심에서 수공업에 바탕으로 청년 그린크래퍼를 양성하며 원도심의 문화예술 지원과 어울려 지역 활성화를 견인한다.

‘지구장이 마을’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지난 4월 (유)사각사각이 최종 선정되

어 매년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업추진주체인 (유)사각사각은 청년들과 환경에 앞장서는 제로웨이스트 마을 조성을 목표로 중앙동 일원에 커피네트 공간, 공유 오피스,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해 나간다.

우선 올해는 친환경제품 품평회와 축제를 통한 관계 및 생활인구 만들기를 시작한다. 내년에는 환경이템 창업체 및 교육을 통한 그린크래퍼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장이 마을 인증 친환경 제품 선정 및 박람회 등 2025년까지 마을 기업화를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권순표 지구장이 마을대표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청년마을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돼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향후 3년간 잠시 머무는 지역이 아닌,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익산 지구장이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마을은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자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곳”이라며 “청년과 익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행복포인트 1호 달성자 도서교환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행복포인트제’ 1호 달성자가 나왔다.

시는 지난 14일 수송동에 거주하는 소정화씨가 최초로 행복 포인트제 3만 점을 달성해 지역서점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도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소씨는 현재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캘리그라피와 통기타 강좌를 수강 중이며 거리공연과 SNS활동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행복 포인트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출석과 봉사, 체험 및 행사 참여 등 활동 내역에 따라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수강생은 누적된 포인트를 지역 내 서점에서 도서로 교환할 수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도서교환을 위해 지역서점을 방문한 소씨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찬 일인데 이렇게 활동내역을 포인트로 적립해 도서를 교환해주시기 기쁘고 함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더 생겼다”고 말했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평생학습 행복포인트 첫 번째 달성을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